

창세기(3)

창세기 1 장 4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의 물들에서 창공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선교 헌금 바치는 손길이 있으니 이 헌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축복하실 때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을 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빛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 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8 절에 창공을 만들었더라 하셨을 때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을 그곳에 가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공을 창조하셨을 때 별로 좋지 않으셨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창세기 1 장 2 절에 이미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둘 곳을 만드신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 창공만큼은 보기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4 절~7 절 말씀을 보면 ‘나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divide 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것을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됩니다. 바로 죄가 없는 곳에서는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 받은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룬다고 에베소서 4 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또 선한 자를 상호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 장 7~8 절을 보면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다고 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분리시켜서 동편 롯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도성을 쌓고 도시에 모여서 하나가 되자는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나가 되자고 하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죄인들의 속성은 죄인끼리 모이면 뭔가 위로를 받고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주의들이 나온 것들은, 인간들이 어떤 이즘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세력을 과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정당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교계에도 보면 숫자가 적을 때는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면 입을 다물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인의 속성인데, 죄인끼리 모일 때 서로 같은 죄를 지니까 서로 위로 받고 죄를 지어도 어떤 가책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심지어 게이들까지도 하나가 되어 이제 미국에는 게이를 불법화하는 법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참 온갖 짓을 다하며 세력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교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리가 다르고 같고 상관없이 무조건 초교파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끼리 뭔가 세력을 과시하자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사탄의 영이 뉴에이지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인간의 힘으로 뭉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 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또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6 장을 보겠습니다. 6 장 14 절부터 17 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교회가 깨끗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 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부로 택함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주님과 혼인을 하지 못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항상 깨끗하고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교제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 장에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교회지만, 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맛보는 엄청난 축복된 주의 몸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예배를 보면 기분은 좋으나 주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악기들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롭게 찬송하며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보여주려는 형식과 치장, 여러 가지 음악과 오케스트라,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고 분위기를 띄움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 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 장 40~41 절 바로 독보리 비유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라지로 되어 있지만 독보리 비유입니다. 독보리와 보리는 구분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이것도 가려내어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분리시킨 다음에 42 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누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인간끼리 통합하고 교회까지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고 무슬림이고 모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인들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5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여기서 낮이란 단어가 고딕체로 되어 있지요? 한글 킹제임스성경에 보면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밤도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도 DAY 와 NIGHT 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물론 주님께서 하루에 창조하셨지만 이 속에는 무엇인가 24 시간 그 기간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하루인 천 년을 가리킨다는 암시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체계는 일곱 체계이기 때문에, 일곱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인류역사 6 천 년이 끝나게 되면 칠천 년째 밀레니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들만 사는 의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완전한 숫자는 일곱 숫자인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 숫자도 일곱이고 무지개도 일곱 개이고 자연 계시 속에서도 일곱이 완전한 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년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 장에 무려 6 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 년이라는 것은 그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기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었다.’ 우리는 보통 ‘아침과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께서 일요일 날 아침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도 주님은 금요일 날에 돌아가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흘 밤과 사흘 낮을 땅 속에 계시려면 주님은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야만 목, 금, 토 이렇게 사흘 밤 사흘 낮을 주님께서 땅 속에 계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들까지도 수요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카톨릭이 속여서 이것을 성 금요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바알 신과 관계된 모든 종교 행위로 사람들을 지금까지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흘 밤 사흘 낮을 땅 속에 계셨다고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어떻게 금, 토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틀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까?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과 아침이 되는 것은 바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사흘 밤과 사흘 낮 동안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6, 7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에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의 물들에서 창공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또 ‘나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느니라. 구체적으로 그러셨지요.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와 딸이, 딸이 어미와 그럴 것이라고. 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말씀할 때마다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기 창공이 있으라 하셨죠. 궁창이 있으라. 이것은 firmament 입니다. firm 이라는 뜻은 뭐가 단단하다는 뜻이죠. firmament 라는 것은 마치 쇠를 두드려 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려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도 있을 수 있고 아래 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도대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수증기라고 그래요. 수증기랑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 장 20 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지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절대 듣지 말라 이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과학이라는 단어를 꼭 빼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과학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앞에서 신학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발견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주 조금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조금만 발견한 것이지, 사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는 맛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맛볼 그 엄청난 과학은 지금 과학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허블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 과학자들은 질식을 하며 졸도할 것 같다고 그런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자기들 체면이 상하니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증기는 결코 하늘들 위의 물이 아닙니다. 하늘들 위의 물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들, 시편 148 편 4 절에 보면, “하늘들 위에 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도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 하면 삼층천, 일층천은

대기권이고, 이층천은 해와 달 우주의 모든 별들이 있으며, 그리고 삼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또 욥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저기 저 보좌 밑에 있는 그 유리바다는 열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공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 결국 진리를 가리고 있고 다른 성도들까지도 과학에 무릎을 꿇게 하여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솔깃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말씀 앞에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여 올바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